

인류에게 드린 마지막 말씀

구세주 없이는 하늘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없다

막강한 마귀 이기는 구세주 출현

참고 견디는 인내심 없이는 이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구세주를 내 마음속에 모시는 것도 구세주를 모실만한 경지에 도달했을 때 마음에 모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구세주 안에서 생활을 하려고 해도 마찬가지로 그 경지에 도달했을 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길은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없이는 갈 수 없다고 말씀해 했던 것입니다. 인내심은 하나님이나 있는 거지, 마귀는 인내심이 없습니다. 시시때때로 변하는 것이 마귀의 성품입니다. 꾸준하게 참고 견디는 인내심을 가지고 끝까지 견디고 참아야 구세주를 모실 수 있는 경지에 도달할 수가 있고 구세주 안에서 생활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서는 마귀가 너무 너무 강하고로 구세주가 되려면 상당한 인내력과 능력을 갖추어야 되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세주를 키우는 데 6천 년이 걸린 겁니다. 6천년 동안 구세주의 능력을 키울 뿐만 아니라 인내심을 키웠던 겁니다. 이 사람은 죽는 사람의 경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그 고비의 경지를 넘지 못해서 죽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러한 인내심이 없기 때문에 죽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력

여러분들도 끝까지 참고 견디는 그런 연단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매일 제단에 나오라고 했던 겁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인내력을 키우기 위한 방편입니다. 매일 나올 자신이 없는 사람은 일찍이 포기하고 지옥 가는 것이

낫습니다. 이 사람은 초창기부터 강자를 키우러 왔지 약자를 키우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말해주었습니다. 인내력이 강한 사람을 가리켜서 강자라고 말합니다. 인내력이 없는 사람은 약자입니다. 강자라야 이 길을 갈 수 있고, 강자라야 이긴자가 되고, 강자라야 구세주가 되는 거지, 강자가 아니면 절대로 구원이 될 수도 없고 또 이긴자가 될 수가 없는 겁니다.

이 사람은 밀실 안에서 도저히 참을 수 없는 경지에서 견디고 또 견디고 견딜 수가 없는 그런 경지를 넘어서서 견뎠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긴자가 되더라도 초창기에 간증 말씀을 했습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는 인내심이 강한 자가 의인이 되는 겁니다. 인내심이 없이는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의 주체성이 마귀인고로 마귀가 죄를 짓게 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끝까지 참고 견디고, 견딜 수 없는 순간에도 견디는 그러한 자가 의인이 되는 것입니다.

영생의 희망 속에서 사망을 이기는 힘 나와

영생의 희망이 없으면 그런 힘이 솟구쳐 나올까요? 안 나와요. 영생의 희망이 확고부동하게 확립되어 있어야 끝까지 참고 견디는 여력이 나오게 되어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참고 견디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신은 인내의 신입니다. 그러나 마귀의 신은 수시로 변덕이 일어나는 신입니다. 직장에 들어가도 며칠 다니다가는 툭 튀어나오고, 또 며칠 다니다가는 툭 튀어나오고 하는 사람이 있죠? 마귀의 성품이 많아서 마귀의 신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은 오래 진득



구세주 조희성님

하게 참지를 못하는 겁니다.

이 사람이 밀실에서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아무리 힘을 써도 되지 않고, 아무리 애를 쓰고 기를 써도 안 되는, 아무리 해도 참을 수가 없는, 견딜 수가 없는 경지에 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경지를 넘어서야 이겼다가 되는 겁니다. 사람이 죽을 때도 '아이고 죽겠다' 하고서 포기하는 순간 골짜기하고 죽는 겁니다. 끝까지 견디고 참고 매달리면 절대로 숨이 넘어가지 않습니다. 포기할 때에 숨이 넘어가고 완전히 좌절했을 때 죽는 겁니다. 이것만 알면 신앙이 없어도 안 죽습니

다. 그래서 비싼 말씀입니다. 억 천만 금을 주고도 들을 수가 없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듣고 있는 겁니다. 세상에서 사업을 할 때에도 사업에 실패했다고 해서 좌절하고 포기하면 그 사람은 완전히 실패자가 되어 버립니다. 그러나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도전에 도전해 가하게 되면 결국은 그 사람은 성공하게 됩니다.

구원 얻는 방법

계시록 12장 5절에 해를 입은 여자가 철장을 가지고 만국을 다스릴 아들을 낳는다고 쓰여 있습니다. 해를 입

은 여자가 바로 영모님입니다. 영모님이 구세주를 나았으므로 굉장한 위대한 존재죠? 그 영모님이 말씀하기를 하나님을 땀기는 자 한 사람 밖에 없다고 했습니다. 그 한 사람이 바로 이긴자 구세주입니다. 이긴자 구세주만이 하나님을 땀기는 능력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땀겨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부여하고 있는 고로 여러분들이 다 구세주로서 점점 자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절대로 구세주도 될 수 없고, 이긴자도 될 수가 없습니다. 인간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절대로 이긴자나 구세주가 될 수가 없습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한 구세주를 키운 겁니다. 6천 년을 거쳐서 구세주를 키웠던 겁니다.

구세주를 여러분들 마음속에 모시면 또 여러분들이 구세주 안에 살게 되면 구세주가 된다고 구세주가 되는 방법을 가르쳐 주었죠? 이걸 들었음에도 구세주가 못 된다면 그 사람은 저주 받은 사람입니다. 저주를 받았기 때문에 되지 않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할 수 있는 방법을 또 내가 논하는 겁니다. 끝까지 참고 견디라 그 말이예요. 구세주가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끝까지 매달리면 구세주가 여러분들 다 하나님을 만들고 구세주를 만들고 승리자를 만들게 되어 있죠? 이 역사는 구세주가 하는 거지, 사람은 못하는 겁니다. 사람이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생각을 빨리 바꾸어야지, 지옥에 떨어집니다. 아시겠습니까? 구세주만이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백 년도 아니고, 천 년도 아니고, 오천 년도 아니고, 육천 년에

거쳐서 구세주 하나를 이룬 겁니다. 구세주 하나만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구세주가 온 세상 인류를 전부다 구세주를 만들어서 천당에서 살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인류 구원의 뜻에 협조하라

그러니까 이 역사를 하는 것은 구세주가 하는 몫이지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끝까지 참고 견디면서 구세주의 뜻을 따라서 여러분들이 생명을 걸고 협조하는 길 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을 구세주, 승리자로 만드는 것은 구세주의 몫입니다. 구세주가 하는 거예요. 구세주가 없이는 이 역사는 안 되는 겁니다. 마귀가 이것을 알기 때문에 구세주를 7년 동안 징역살이 시킨 것은 죽이려고 했던 겁니다. 사람을 죽이지도 않은 것을 죽였다고 말하면 풀어준다고 이렇게 유혹을 하는 겁니다. 그거 말하면 목에 밧줄을 걸어 죽여 버려요. 마귀들이 이 사람을 사형을 시켜서 죽이려고 계획을 했던 겁니다. 마귀들의 관계가 얼마나 무섭다는 것을 알 수 있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육중에서 나와서 많은 구세주를 배출시키려고 노력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구세주 되는 것은 온전히 구세주에게 맡기기만 하면 됩니다. 구세주에게 맡기기만 하면 구세주가 여러분들을 구세주로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능력이 쥐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구세주가 되려면 끝까지 참고 견뎌야 되는 겁니다.*

2003년 8월 13일 말씀

[연재]不老不死 어떻게 가능한가

피의 순환

사람이 스트레스 때문에 각종 신체 질환, 곧 질병에 노출된다는 것까지 살펴보았다. 여기까지는 누구라도 조금만 건강에 관심이 있는 사람은 흔히 접할 수 있는 내용이다. 이제부터는 진짜 스트레스가 무엇인가를 폭넓게 알아 볼 필요가 있다. 스트레스라고 하면 막연히 '나쁘다'라는 이미지만 그려질 뿐, 정작 스트레스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아는 경우는 잘 없다. 이해를 돕기 위해 네이버 '도형분석 상담 연구소' 카페에 게재된 글을 요약 소개해 본다.

-스트레스 개념이 세상에 알려지게 된 것은 백 년도 채 되지 않았다.

미국의 생리학자 캐논(Canon)은 생명체의 생존을 위한 시스템을 연구하면서 스트레스라는 단어를 생리학적으로 사용했다. 그는 생명체가 스트레스를 받았을 때 생존순단으로 투쟁-도피 반응(fight-flight response)을 한다는 것을 밝혔으며, 이 때 일어나는 생리적 균형(homeostasis)을 규명했다. 이후 1936년 캐나다의 학자 한스 셀리(Hans Selye)가 스트레스에 대해 '개인에게 의미있는 것으로 지각되는 외적, 내적 자극'이라고 정의함으로써 지금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렇듯 학술적 정의에 따르면 스트

레스는 꼭 나쁜 것만은 아니다. 스트레스는 생명체가 외부의 환경이나 내부의 변화에 즉각적이고 민감하게 반응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싸울지 도망갈지를 빨리 결정하게 하는, 그야말로 객관적인 '생존 시스템'이라 할 수 있다. 이 시스템이 잘 작동할수록 우리는 응급상황에 잘 대처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당신이 사막을 걷고 있다고 가정해 보자. 갑자기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나면서 길쭉한 물체가 사사삭 하고 나타나는 것을 느꼈다. 이때 몸은 바로 긴장을 하면서 심박수가 늘어나고, 호흡과 움직임이 빨라지면서 조그마한 소리나 촉각에도 매우 민감해질 것이다. 아주 짧은 시간 동안 우리 몸은 '위험한 일이 벌어졌다'고 여기고 전투와 방어 태세를 갖추는 것이다. 게다가 영점 몇 초의 짧은 순간 안에 '싸울까 도망갈까(fight or flight)'를 결정해야 한다. 만일 그게 그저 바람에 흩날린 나뭇가지였다면 바로 경계태세를 풀겠지만, 방울뱀이었다면 뒤로 출행량을 쳐야 한다. 이때 순간적으로 민첩하지 않으면 바로 생명을 잃을 수 있기 때문이다.

스트레스 반응은 이렇듯 위험한 상황에 우리의 생존을 돕기 위한 본능적인 반응이다. 반대로 옛 선조들이 먹이를 사냥할 때도 이 같은 스트레스

반응이 나타나서 효과적인 사냥을 돕는다. 결국 스트레스란 인간이 환경에 더 잘 적응하고 변화하기 위한 기능의 하나인 것이다.

스트레스를 발전시킨 인간

인간은 이런 생리적인 반응에 대해서 스트레스 반응을 발전시키기도 했다. 심리학자 라자루스(Lazarus)는 인간은 학습능력을 사용해서, 전에 일어난 일과 비슷한 상황이 다시 벌어지면 전에 겪었던 경험을 되살려 미리 위험에 대비하려고 하는 이른바 '예측시스템'을 갖추게 되었다고 주장했다. 예를 들어 불에 한 번 데인 어린이는 그 후에는 불 가까이 가려고 하지 않거나, 불이 가까이 오면 저도 모르게 몸을 웅크려 불을 피하려고 한다. 이것이 바로 인간이 다른 동물들보다 스트레스를 더 잘 다루고 안전하게 환경에 적응하게 된 것에 관한 비밀이라는 것이다.

하지만 환경에 더 안전하게 적응하기 위해 스트레스 반응을 발전시켜온 노력이 이제는 현대인의 발목을 붙잡고 있다. 중요한 시험에 한 번 실패한 사람은 시험이란 말만 나와도 불안해지기 시작하고, 시험이 다가올수록 긴장도는 올라가게 된다. 시험 실패는 호르몬이나 늑대와 같이 눈에 보이는 실

체나 목숨과 관계된 위협이 아니다. 그러나 그 사람은 실패하는 경험에 의해 시험을 두려워하고, 그 앞에서 긴장하여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게 된 것이다. 즉, '하나의 경험'이라는 무형의 기억도 나쁜 스트레스의 근원이 되어버리고만 것이다.

그렇다고 스트레스가 꼭 괴로운 것만은 아니다. 위험에 의한 긴장 등 나쁜 스트레스도 있지만, 좋은 일에 흥분을 해도 스트레스가 발생할 수 있다. 예컨대 상을 받기 위해 연단 앞에서 기다릴 때의 긴장, 결혼식장에서 입장을 기다리는 신부의 두근거림 등도 일종의 스트레스 반응이다. 그래서 학계에서는 일상적으로 우리가 경험하는 불편하고 괴로운 스트레스를 '디스트레스(distress)'라고 하고, 위와 같이 좋은 일이지만 자율신경계가 스트레스 반응을 보이는 것을 '유스트레스(eustress)'라고 부른다. 월드컵 경기를 보다가 한국 선수가 골을 넣자 환호성을 지르다 심장마비로 사망하는 사건이 벌어지는 것도 유스트레스가 지나칠 때 벌어지는 일이다.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 맞을까, 틀릴까?

많은 이들이 질병의 원인으로 스트레스를 가리킨다. 스트레스가 불러오

는 병의 종류는 암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감기와 발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기 때문에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라고 불린다.

이로써 미루어 보건대 가장 짧게 산 사람은 스트레스를 잘 다스리지 못한 것이고, 가장 오래 산 사람은 스트레스를 적절히 잘 다스렸기 때문이다. 일생 동안 작은 스트레스가 지속적으로 계속 공급이 되면 문제가 생긴다. 스트레스가 해소되지 않고 쌓이는 것만 반복되면 그때에는 신체에도 문제가 생긴다. 스트레스 분야의 세계적인 권위자인 한스 셀리는 스트레스에 대해 반응하는 몸의 양식을 가리켜 '일반적응증후군(general adaptation syndrome)'이란 개념으로 설명했다. 이에 의하면 우리의 몸은 스트레스에 대해 몇 단계의 반응을 차례로 내보인다.

1단계 경고기: 스트레스에 대해 우리 몸의 자원을 총동원해서 잘 방어하기 위해 노력하는 단계다. 스트레스에 대해서 우리 몸 안의 내분비계, 스테로이드, 교감신경계가 적극적으로 활동하는 시기다.

2단계 저항기: 긴장되는 상황. 위험

한 상황이 지속되면서 교감신경계가 활발히 활동을 하려고 힘을 쓸지만 전 같이 몸이 민감하고 활발하게 반응하지 못한다. 지치기 시작한 것이다. 보통 우리가 "신경은 곤두서는데, 잠은 안 오고 집중은 도리어 잘 되지 않아요"라고 호소하는 것이 이 시기다. 소화장애나 불면증 등 건강에 적신호가 오기도 한다.

3단계 소진기: 소진기가 되면 몸 안의 자원이 모두 동이 나버려서, 쉬어도 쉬지 않고 힘을 내려고 해도 도저히 몸의 긴장도가 올라가지 않는다. 말하자면 '다 타버려 재만 남은' 지친 상태가 되어버린 것이다. 건강에 문제가 생겨 여러 질병이 생길 수도 있는 단계가 여기다.

스트레스의 메커니즘을 잘 이해하고 관리한다면 스트레스는 나에게 매우 소중한 긍정적 신호가 될 수 있다. 내 안의 스트레스를 잘 관리해 준다면 급작스러운 상황에도 유연하게 잘 대응할 수 있게 되어, 도리어 강한 적응력을 갖게 하는 것이 바로 스트레스의 힘이다.

따라서 스트레스는 무조건적으로 피해야 할 공포스런 것이 아니라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활용해야 할 도구이다. 잘 관리한다면 훨씬 좋을 수도 있는 것, 그것이 스트레스의 핵심이다.*

김주호 기자